

萬曆壬辰九月十六日歃血同盟於湖南興德南塘義兵所諸員任錄

突擊將判事																			
蔡慶達																			
林大一	林世茂	金邦弼	蔡德良	卓祥	曹益壽	李成春	李綽	蔡英達	尹興壽	襄守義	李敏敷	金尚秋	林樞	吳松壽	蔡鳳	金應兌	崔有青	羅紀寅	
前哨將										右隊官 白衣									
朴慶德	李寅發	蔡章	蔡弘武	金以鳴	蔡利達	蔡琨	林世童	蔡寅達	蔡英	李蕃衛	蔡永達	李寅永	蔡弘宇	田始秋	蔡弘業	金尚同	許燮	黃得中	

	蔡致貞	崔鳳彥	仙佛菴世尊	僧觀心
蔡成章	郭邦郁	安知煥	大菴	
	閔佑適			

夫奮忠就義實爲風化之綱領邦國之基礎也郡之東

二里許倡義碑閣卽在昔龍蛇之變義旅將贈兵曹

判書平康蔡公諱弘國號野叟先生與九十二義士立功

殉節遺蹟也嚴立道周炳若曰星年之頽圯碑獨屹然世

級滄桑紙切行路咨嗟之弁先生十一世孫東漢尤懷悶迫不憚

家貲之傾與其宗族京渢東輝述永東夏協議同謨碑以守

舊址閣則移建于會盟之地南塘克致朔參望謁之禮若非賦

性孝友慕先慕賢之至孰能如是嗚予先生之父子兄

弟叔侄及諸賢之忠魂義魄庶幾有感應於冥冥之

中矣儘可爲徵信於異曰立言之君子歟

歲甲子仲春上澣後學水原白賢洙謹撰

野叟先生十一世孫東輝百拜謹書

무릇 충(忠)이란 의(義)를 취한 것으로 교화의 유품이며, 나라를 지키는
기초이다. 군의 동쪽 2리쯤에 있었던 창의비각(倡義碑閣)은 옛날 임진
왜란 때 의병장 증 병조판서 평강채씨 휘 홍국(弘國)·호 야수(野叟) 선
생과 92의사의 공적을 세운 것을 기리는 습질 유적이다. 길 가에 업연
히 서 있어서 만백성에게 빛나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무너지고
기울어져서 비석만 흘로서 있게 되었다. 금기야 창상이 변화하면서 행
로가 끊어져 단식한 것이 오래되었다. 선생의 11세손 동한(東漢)이 그
중에서도 담담함에 가산이 기우는 지경을 끼리지 아니하고 그 종족 경열
(京冽) 동엽(東暉)·술영(述永)·동하(東夏)와 더불어 협의하여 같이 비

석이 있는 옛 땅에 있는 비각을 지키려 도모하고, 회맹을 하였던 남당에
옮겨 세우기로 하였다. 마침내 초하루날 조상에게 아뢰는 예를 올렸다.
타고난 품성이 효성스럽고 우애하지 않는다면 선대를 사모하고 성현을 사
모하였겠는가. 마침내 능히 이를 이루었다. 오호라 선생의 부자, 형
제, 속질, 그리고 여러 현사들의 충혼(忠魂)과 의혼(義魂)이 얼마동안
이나 미혹되어 있다가 아득한 어둠 속에서 응험하였으니 진실로 후일에
입언(立言)하는 군자에게 징험이 될 것이다.

세갑자(甲子 1924) 중춘 상간

후학 수원 백현수(白賢洙) 삼가 글을 지음
야수선생 11세손 동휘(東輝) 백배(百拜)하고 삼가 글을 씀